

군산시에 대한 공식 질의 네 번째입니다(4/20)

군산시는 어떤 근거와 권한과 이유로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를 본래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철저히 방해하고 폐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자면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 설립 근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근거 법령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농어촌 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근거하여 2016년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에 응모 선정되었고(국비 70% 지방비30%) 2018년 추진위원회(서수면장은 당연직 추진위원)에서 당시 서수면장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운영위원회로 변경 지금까지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이래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비롯하여 수많은 주민 사업을 지원 또는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본 센터의 완공과 더불어 계획된 사업들을 힘차게 밀고 나가야 하는 데 군산시의 방해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며 그저 황당하기만 합니다. 군산시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반문해 봅니다. 본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군산시는 의도적으로 본 단체를 배제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지만(지금까지 철저히 본 단체를 소외시킨 것을 보면) 현재의 군산시 서수면의 행태를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면장 부임 이후 단 한번도 서수면 농 중활 사업에 대한 지식도 관심도 참여도 없었습니다. 이전의 서수면 면장님들과 확연히 다르게 처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공무원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들리던 소문대로 “군산시 토목직 카르텔이 무섭다.” 그런 말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적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에 차후로 미루고 현재 완공된 무궁화 문화복지센터는 우리 농 중 활에서 추진하고 설계에 반영 예산이 투입된 북카페, 사무실 쓸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농촌 사업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을 스타트했지만, 인터넷조차도 개통할 수 없음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을 군산시가 할 수 있는지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운영체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빠른 답변 주십시오.

2024. 1. 26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운영위원회
(사)서수면 사람들 일동